

侍天主思想의 發展과 人乃天主 主義의 定立

趙 成 玟

序

우리는 한국의 사회에서, 한국의 언어로 사유하고, 한국의 언어로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며, 한국의 언어로 상호의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같은 언어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한국의 사상도, 우리는 그것을 한국의 언어로 사유하고 연구하며 또한 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體臭가 풍기는 이러한 사상은 그 자체에 굳건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에게 생의 의욕과 용기를 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시련과 외부의 도전도 우리가 싸워 극복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이제는 이와같은 한국사상이 형성되어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성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절실히 바라는 절박한 요구성 때문이다.

훌륭하고 세련된 서구사상을 한편으로 흡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일에만 전념한 나머지,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을 확립하는 데 등한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상이 있건 없건 간에, 있더라도 一顧의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가뭄에 한 줄기의 물을 갈구하는 것과 같은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망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으로서의 東學思想에 잠시 눈을 돌려, 그것을 현 시점에서 재음미해 봄으로써, 한국사상의 형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보자는 데 本 小考의 목적이 있다.

I

東學의 教祖 崔濟愚는, 1824년 즉 李氏王朝가 동요되고 민심이 혼란하던 시기에, 慶州에서 탄생하였다. 水雲 崔濟愚는 新羅末의 學者 孤雲 崔致遠의 28代孫이요, 그의 아버지 崔滢은 文章과 道德으로 慶尙通 士林에서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崔滢은 60세가 넘도록 자식을 못보다 寡婦 韓氏를 맞아 濟愚를 낳았다고 한다. 水雲은, 16세에 부친상을 당하자, 세상과 인생에 회의와 불만을 품고 출가 구도의 길에 들어 섰다. 20년 동안 그는 팔도강산을 돌아 다니면서 당시의 민심의 동태를 파악했고,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민중의 생활이 처참한가를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다.

그 당시 李朝社會는 西方帝國主義 세력의 침략과 아울러 西方文物思想의 도래와 天主教의 침입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政治的으로는 勢道다툼으로 中央이나 地方이 다같이 말할 수 없이 부패하였고, 經濟的으로는 三政이 매우 문란하여 국가의 敗政은 날로 줄어가고, 農民의 부담과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각 지방에서는 貧困과 不平等에 지친 민중들이 王朝와 지배자에 民搖·暴動의 모습으로 반항하게 되었다. 天下의 大國이라고 自他가 공인하던 淸國의 수도가, 그 때까지 야만국으로 생각되었던 영국과 불란서의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온 나라는 공포에 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체 모를 怪疾로 수십만의 人命이 희생되었다 한다.

이와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양반 계층이 내세우는 儒敎의 理念은 민중에 대한 信望을 잃고 말았다. 이에 水雲은 수 천년 동안 동방사상을 지배해온 儒·佛·仙 三敎를 批判·綜合하고 天主教의 영향을 받아 侍天主를 기본 사상으로 한 東學을 창도하여, 그것을 새로운 지도원리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II

水雲은 1860년 四月 五일에 어떤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하여 道를 받았다고 한다. 水雲은 그의 道를 天道라고 불렀는데, 그 天道라는 말은 中國 철학에서의 天道 즉 천지자연의 理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을 뜻한다.

哲 學 論 究

水雲이 「天道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라면, 그가 세운 東學이 하느님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교임을 알 수 있다. 崔東熙 교수는, 水雲이 믿은 하느님은 어떤 意志的인 神으로서, 그리스도교의 人格的인 唯一神인 Deus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水雲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의 고유한 민간신앙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水雲 자신은 하늘(天)에 존칭을 뜻하는 님(主)을 붙여 하느님이라는 말을 오로지 쓰려고 했지만, 한문체에서는 하는 수 없이 하느님을 한자로 意譯하여 天主라고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水雲이 그리스도교의 神을 받아 들였다는니, 또는 그가 믿은 하느님이 우리의 고유한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라느니 하는 시비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西洋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조백이 없으며, 머리를 숙이나 하느님을
위하는 속심이 없고, 다만 스스로 몸을 위하는 길만을 빌 뿐이다(西人 言無次
第 書無自白而頓無爲天主之端 只祝自爲身之謀)「論學文」.

이 귀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水雲은 그가 믿은 하느님을 서양사람이 믿은 하느님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하느님과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水雲은 구태여 「侍天帝」니 혹은 「侍上帝」니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侍天主」라는 표현을 쓰는 여유도 보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水雲이, 그가 믿은 하느님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교의 天主와 동일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가 西學으로 몰릴 위협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天帝니 혹은 上帝니 하는 우리 민족이 써 내려온 표현을 쓰지 않고, 하필이면 天主라는 말을 써야 할 까닭이 있을까 의문이 나는 것이다. 水雲은, 그가 믿은 하느님이나 西洋人이 믿은 하느님을 서로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意譯하여 스스로 「天主」라는 말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中國에서 이미 사용되어 왔던 것을 그가 그대로 받아 사용했으리라 짐작된다.

水雲이 믿은 하느님은 전지 전능하고 성실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요, 그것은 예컨대 성실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人格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은 자연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최고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水雲이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은, 대체로 다른 일신교적인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神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속성을 지닌 하느님이 水雲에게 내려준 道 즉 天道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는 天道를 받기 바로 전에 神奇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 全身이 몹시 떨리고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 왔다고 한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란 대체로, 하느님이 자기를 위하여 水雲을 내세운다는 것이요, 하느님이 水雲에게 靈符와 呪文을 준다는 것이다. 이 영부와 주문은 無窮한 天道의 내용이다. 이제 하느님과 한 마음이 된 水雲은 무궁한 道를 행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주문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부로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주문은 降靈之文이라 하여 天靈을 강림토록 하는 글이라 한다. 그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주문을 통하여各自에게 강령토록 한다는 뜻이다. 즉 각자로 하여금 주문을 암송시킴으로써 神人の 合一의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이다.

水雲의 종교적 사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侍天主는 이 降靈 또는 神人の 合一과 같은 뜻이라고 본다. 天道教의 宗旨인 人乃天主義는 侍天主사상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라 보는 데, 이 人乃天主義가 발전되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侍天主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水雲은, 「우리 道는 넓으되 요약하니, 많은 말과 뜻을 쓸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誠·敬·信 三字이다」(座箴)라고 하였다. 이렇게 근본적인 세가지 德目 가운데서도 信이 가장 근원적이라고 한다. 하느님을 분명히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 이 信에는 誠과 敬이 저절로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은 心的으로 그친다면 불충분하다. 역

시 어떤 身的인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이와 같이 水雲은 하느님을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身的으로 생생하게 徵驗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直證하는 것을 「하느님을 모신다」(侍天主)고 말하였다.

水雲은, 하느님을 위하는 지극한 마음과 아울러 하느님의 靈氣와 化合하는 身體的인 상태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고 믿었거니와, 이러한 心的인 및 身的인 상태를 갖추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그는 「守心正氣」라고 말했다. 그는 이 守心正氣야말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새로운 德이라고 믿고 이것을 힘주어 사랑하였다. 이 守心正氣를 體得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추고 있는 글이 바로 呪文이라는 것이다. 이 呪文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외움으로써 守心正氣를 體現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水雲의 종교사상은 결국 「하느님을 모신다」는 데 마지막 목적이 있다. 하느님을 모시면 만사를 깨닫게 되고 무궁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이제, 水雲의 종교사상의 핵심인 侍天主사상이 海月, 義菴에 의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발전하였는가를 고찰하고, 아울러 人乃天主義의 定立과정 에 대해서도 侍天主사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무릇 天地는 鬼神이며 鬼神 역시 造化니라. 그러나 鬼神이라 하며 造化라 함은 다만 一氣의 所使니, 어찌 사람 뿐이 天主를 侍하였으랴. 天地萬物이 侍天主 아님이 없나니 故로 以天食天은 宇宙의 常理니라.

海月은, 淸州의 徐垞淳이라는 教人의 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의 머리가 베짜는 소리를 듣고 문득 이 說教內容을 착상하였다. 그 베짜는 소리를 통해 하느님의 造化를 感得하였기 때문이다. 이 설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 뿐만 아니라 天地의 萬物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水雲은 사람만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海月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天地萬物, 심지어 땅의 微塵까지도 하느님을 모신다고 보았다. 侍天主를 확대·해석한 海月

侍天主思想의 發展과 人乃天主義의 定立

의 이와같은 입장은 분명히 汎神論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侍」字의 새로운 해석이다. 水雲은 敎人들에게 하느님을 모시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海月은 사람이 사람으로 생겨날 때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다. 海月은,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이제 「하느님을 기르라」(養天主)는 새로운 표현을 쓰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생겨날 때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느님을 모시라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各自가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잘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侍」字의 새로운 해석에서 「養天主」라는 새로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人은 卽 天이며 天은 卽 人이니, 人外에 別로 天이 없고 天外에 人이 없느니라(天道敎書 第二編)

여기서 海月은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人卽天)라고 강조하였다. 좀 비약이 심한 듯한 표현이지만, 그 뜻은 사람이란 본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겨날 때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측면에서는 사람은 곧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어감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극도로 강조되기 때문이다. 海月의 時代에 있어서는, 동학의 민중적인 성격상으로 오는 필요 이외에 布敎上으로 오는 필요까지 결들여, 인간의 존엄성을 특히 강조해야 했던 것이다.

사람은 곧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전제한다면, 또 다른 海月의 독특한 표현도 충분히 이해된다:

先生이 人乃天의 本義를 說明하여 人을 事하되 天과 如히 하라 하셨나니, 故로 나는 비록 婦人 小兒의 말이라도 또한 天語로 알고 배울 것을 배우고 스승으로 삼을 것은 스승으로 삼았노라(天道敎書 第二編)

여기서 海月은 하느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였다. 原始儒敎에는 하느님을 섬기듯이 아버이를 섬기고 아버이를 섬기듯이 하느님을 섬기라는 말은 있다. 그러나 海月은 地位·階層·學識 혹은 나이를 떠나 인간 자

哲 學 論 究

체를 존경하라는 것이다. 부인이나 어린이도 하느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 「事人如天」도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人即天)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제 水雲의 侍天主를 義菴은 어떻게 변형·해석하였는가 보고자 한다.

이 性과 이 心이 하늘에서 나왔으므로 하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
(是性是心出於天 故曰侍天也)

이것은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사람의 性과 心이 하늘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侍天)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侍天主라는 水雲의 표현을 굳이 侍天이라고 고칠 까닭은 무엇일까? 水雲은 「하느님을 모신다면 그 造化가 體得된다」(侍天主造化定)고 가르쳤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잘 모시기만 하면, 그의 造化를 우리 인간에게 내려 준다는 뜻이다. 여기서 天主는 글자 그대로 하느님이고, 이 하느님은 어떤 意志的인 神을 뜻하고 있다. 그런데 侍天은 하느님(天主)이 아닌 하늘(天)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意志的 성격을 부정하려는 의식적인 의도라고 해석된다. 만일 이렇게 하느님의 意志的인 성격을 부정한다면, 모신다(侍)는 말도 그 뜻이 매우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성을 다하여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인간 속에 내재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은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된다.

我心을 覺하면 上帝 곧 我心이니라. 天地는 我心이니 森羅萬相이 다 我心의 一物이니라. 我心을 我侍니 我는 곧 指名이요 指名은 곧 現身을 이룸이니라(無體法經)

여기서는 분명히 上帝도 곧 나의 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하늘을 모신다」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心)을 모신다」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心外에 天이 無하고 心外에 理가 無하고, 心外에 物이 無하고 物外에 造化가 無하니, 故로 性理를 見코자 하여도 我心에서 求할 것이요, 造化를 用코자 하여도 我心에 在하며, 天地萬物 世界를 運搬코자 할지라도 我心의 一片頭에 在하니라(無體法經)

侍天主思想의 發展과 人乃天主義의 定立

이것은 저 「三界은 오직 마음이다」(三界唯心)라고 하는 大乘佛敎의 입장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오히려 性理學的인 입장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역시 天賦的인 순수한 마음 즉 性을 뜻하며, 이 性은 곧 理를 말한다. 그런데 天地萬物의 理를 天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마음(心)은 하늘(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天賦的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곧 天이라는 뜻에서 人乃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人乃天의 뜻은 이제 철학적으로 풀이되기 시작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天賦的인 마음이라고 해도, 天地萬物을 「貫流하는 理」 즉 天과 아주 같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역시 부분적인 데 대하여, 天은 역시 전체적이다. 물론 質的으로는 같을 수 있으나, 量的으로는 매우 다르다. 아무리 天賦的인 마음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나라는 개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天은 天地萬物을 貫流하는 무한한 理이므로 어디까지나 전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곧 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人乃天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원래 人乃天이라는 신기한 주장을 시도할 때에, 이미 사람과 하늘 사이에 있는 量的으로 엄청난 차이를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면 量的으로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量的으로는 다르지만 質的으로 같으므로 결국 같다는, 量보다는 質에 우위를 두는 논법을 쓴 것이다. 사람은 小分天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치 서양 철학에서 사람을 宇宙에 대해 小宇宙라고 함으로써, 宇宙와 사람을 동등하게 보려는 것과 같다. 사람은 小分天 즉 부분적인 天이고, 이른바 天은 전체적인 天이다. 量的으로는 부분과 전체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質的으로는 다 같은 天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小分天인 人之性은 곧 全的인 「天之理」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人乃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李敦化에 의하면, 현실적인 인간은 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本源을 따지면 순수한 天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 本源으로 돌아갈 때에는, 혹은 그 本源을 회복할 때에는, 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哲 學 論 究

같이 현실적인 인간이 아닌 本源的 인간이 곧 天이라는 뜻에서 人乃天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1911년, 白仁玉은 그의 論文「人乃天解」에서 人乃天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첫째로, 인간의 性과 身이 아울러 天에서 由來하여 人間은 小分天이고 天은 大分天이므로 人乃天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人間의 모든 機能은 天의 造化가 나타난 결과이므로, 人間의 機能은 나타난 天 즉 有形天이고 天의 造化는 나타나기 이전의 天 즉 無形天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곧 하늘이다(人乃天)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현실적으로는 人間이 萬物을 지배하는 것이고, 天은 오직 人間을 통해서만 萬物을 다스릴 수 있다. 이와같이 人間은 天을 대신하여 萬物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人乃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結

이상으로, 하느님을 신앙대상으로 한 동학이 발전한 과정을, 侍天主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人乃天의 定立과정과 그 論證을 살펴 보았다.

水雲이 생각하고 있었던 意志의인 神으로서의 하느님이, 海月 時代에 와서는 汎神論의인 神으로서 발전하였고, 그것이 義菴에 이르러서는 性理學的인 理論에 의한 설명으로 더욱 더 철저화한듯이 보인다. 義菴은 水雲이나 海月에서의 하느님(天主)을 하늘(天)이라 고쳐 부르고, 性理學的인 설명을 시도하여, 하늘을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는 原理나 原素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같은 하느님의 상이한 해석에 따라서, 水雲의 侍天主가 海月이나 義菴에 의해서 달리 해석되거나 다른 형태로 정립되었던 것이요, 그와 관련되어 人乃天主義가 점점 발전되어 나오다가, 결국 그것이 天道敎의 宗旨로 확립된 것이다. 水雲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니 守心正氣로써 하느님을 모시라는 의미에서 侍天主를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海月은, 사람은 본래부터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제는 하느님을 잘 기르라고 하여 養天主를 설교하였다. 義菴은 하느님 관념을 전혀 意志가 없는 無人格의 하늘의 관념으로 대치하고, 사람은 하늘을 모시고 있다 하여 侍天主가 아닌 侍天을 이야기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

侍天主思想의 發展과 人乃天主義의 定立

은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天賦的인 마음이라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이라는 의미에서 결국 人乃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論理的인 비약이 심한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하여 定立된 人乃天主義는 결국, 東學이 天道教로 새 출발을 한 이후, 天道教의 宗旨로서 꽃피게 되었다.

人乃天思想은 東學에서 불현듯 솟아 나온 것은 아니요, 우리 고유의 하느님 사상으로부터 由來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싹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다음의 記錄에서 엿볼 수가 있다:

대체 人君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人子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다. 아버지가 怒하면 아들은 마음으로 두렵고 민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대체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요, 하느님이 곧 사람이며,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과 사람은 한 이치(理)로 서로 느낀다(夫人君之於天也 猶人子之於父也 其父怒 則子不得不恐懼洞闕 蓋天非天也 天即人也 人非人也 人即天也 天人一理想感 (孝宗實錄 卷八)

이와같이 전통적인 우리의 하느님 사상에서 由來한 人乃天主義가, 李朝 말엽 동학 혹은 천도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다 폭 넓게 발전되었던 것이요, 그것이 천도교의 宗旨로 定立된 이후, 그 철학적인 타당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몇분의 학자들이 시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西洋哲學 일변도에 치우친 풍조 때문에, 우리는 그와같은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망각해 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이에 본 小考가 비록 어떤 문제점을 스스로 제시하여 해결한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각해 가고 있는 자신의 전통사상의 일부분을 들추어 내어 그 의미를 재음미해 보았다는 점에서, 필자는 보람을 느끼며 자위하고자 한다.

* 본 小考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崔東熙 교수의 해석을 우선 토대삼아, 다만 시천주사상이 어떻게 발전하여 인내천주의로 유도되었는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本主題는 동학사상일반과 아울러 보다 철저한 연구와 철학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